

“누가 더 내공 깊나”...스타작가들 필력 대결

최완규 작가 ‘이몽’ 첩보 액션 기대감
김은 작가·안판석 PD ‘봄밤’ 재결합
하반기엔 홍자매 ‘호텔 델루나’ 방영

올해 유난히 많은 유명 작가들이 신작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쯤만으로도 히트 드라마를 떠올리게 하는 이들도이다. 스타트를 끊은 SBS ‘해치’의 김이영 작가를 비롯해 박지은, 홍자매(홍정은·홍미란),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이 새 드라마를 준비 중이다. 내공의 필력으로 차별화한 세계를 그려온 이들의 신작에 벌써부터 방송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타급 연출자와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재화하는 이들도 있어 기대감을 더 상승시킨다.

●로맨스부터 판타지 사극까지

작가들이 써내려 갈 이야기는 다채롭다. 장르, 시대적배경, 소재 등 어느 것 하나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운다. 김이영 작가는 ‘이산’ ‘동이’ ‘마의’ 등으로 쌓은 실력을 SBS ‘해치’로 입증하고 있다. 불우한 출생 배경을 딛고 대권을 손에 넣으려는 왕자(정일우)의 처절함을 격동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평을 이끌어냈다. 작가들의 치열한 필력 대결은 5월부터 본격화한다.

최완규 작가는 시대극과 사극 장르를 넘나들며 ‘허준’ ‘울인’ ‘주몽’ ‘아이리스’ 등으로 얻은 명성을 MBC ‘이몽’으로 이어간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박진감 넘치는 첩보 액션으로 담아낸다.



유명 작가들의 잇단 신작이 시청자 시선을 겨냥하고 있다. 김이영 작가의 SBS ‘해치’, 최완규 작가의 MBC ‘이몽’, 장영철·정경순 작가의 SBS ‘배가본드’(왼쪽 사진부터)가 작가의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다. 사진제공 | MBC·SBS

‘기황후’(2013)의 장영철·정경순 작가는 그 뒤를 잇는 대작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SBS ‘배가본드’를 통해 비리를 파헤치고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려는 남자(이승기)의 모험담을 그린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화려한 액션이 시청 포인트로 꼽힌다.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장동건과 송중기를 내세워 tvN ‘아스달 연대기’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육룡이 나르샤’에서 신화적 소재를 도입하고, ‘씨름:이어진 두 세계’를 통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야기를 선보였던 이들은 지금까지 드라마가 다루지 않은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당대 사람들의 투쟁과 화합, 사랑을 표현한다.

이경희 작가는 자극을 뺀 잔잔함에 집중한다. 유명 요리사와 신경외과 의사가 호스피스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며 아픔을

달랜다는 휴먼스토리 ‘초콜릿’이 그 무대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고맙습니다’ 등을 통해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해온 필력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반기에는 홍자매와 박지은 작가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홍자매는 ‘호텔 델루나’에서 사람과 영혼이 한 호텔에서 생활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판타지 장르로 풀어낸다. 2016년 ‘푸른 바다의 전설’ 이후 작업에 몰두해온 박 작가도 11월 tvN에서 남미의 설레는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에겐 ‘단팍 PD’가 있다!

드라마 흥행을 이끄는 요인으로 연출자의 역량을 빼놓을 수 없다. 작가의 대본을 충실하게 이해해 이를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은 드라마 제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작가와 연출자의 활발한 소통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경희 작가는 ‘초콜릿’을 이형민 PD와 준비하고 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와 ‘상두야 학교가자’를 함께 작업한 두 사람은 그 영광 재현을 기대하고 있다. 김은 작가는 안판석 PD와 다시 손을 잡았다. 지난해 ‘밤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통해 성공을 맛보고 MBC ‘봄밤’으로 의기투합한다.

드라마 제작사 제이에스픽처스의 한 관계자는 “전작을 통해 호흡을 맞추면서 작가와 연출자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각기 자신들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며 “첫 만남에 성공했다면 두 번째에도 좋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열혈사제’ 작가? 알고보니 ‘김과장’ 썼네!

박재범 작가, 다시 정의구현 통쾌 ‘쌈마’
임상춘 작가 ‘동백꽃...’ 선배

박재범, 정현민, 임상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작가다. 하지만 이들이 쓴 드라마를 살펴면 결코 유명 작가 못잖은 ‘믿고 보는’ 실력이 드러난다. 향후 활약상으로도 더욱 기대를 모은다.

박재범 작가는 확실히 자리 잡은 모습이다. ‘김과장’으로 풍자를 통한 통쾌한 웃음

을 자아낸 그는 방송 중인 SBS ‘열혈사제’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과장’이 기업 비리를 다뤘다면, ‘열혈사제’로는 성희롱과 불법행위 등에 맞서며 정의의 찾고 있다.

‘쌈, 마이웨이’로 단번에 화제에 오른 임상춘 작가는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그린다. 세 커피를 등장시켜 이들의 일상을 낱알이 파헤친다. 판타지적 요소는 건어내고 있는 그대로 삶을 보여줘 시청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표다. 로맨스를 기본으로 코믹, 휴



‘열혈사제’

먼, 스텝리를 혼합한 복합 장르로 차별화를 내세운다.

정현민 작가와 백미경 작가를 향한 관심은 다소 늦은 감이 없잖다.

정현민 작가가 필력을 인정받은 결정적 무대는 2014년 KBS 1TV 사극 ‘정도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

려 정치인의 이야기를 그리며 생동감을 전달했다. “정지하는 사람의 허리와 무릎은 유연할수록 좋은 것이다” 등 명대사도 다수 만들어냈다. 이후 5년의 시간을 보낸 뒤 올해 SBS ‘녹두꽃’으로 메시지를 이어간다.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혁명의 기운이 휘몰아치는 시대에 삶의 의지를 잃지 않은 백성들을 조명한다.

백미경 작가는 4연타석 흥행에 도전한다. ‘힘센여자 도봉순’ ‘품위있는 그녀’ ‘우리가 만난 기적’을 연이어 성공시킨 그는 tvN ‘소원을 말해봐’를 준비 중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원을 이룬 고교생들의 모습으로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백솔미 기자

#해시태그 컷



‘우리 주막’ 열어도 되겠죠?

여여쁜 ‘주모’가 등장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유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침개를 부치고 있다. “막걸리, 오징어 부추전”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 손에는 뒤집개, 다른 한 손에는 프라이팬을 들고 제법 요리사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침샘을 자극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먹어보고 싶다” “분명 맛있는 것”이라고 반응한다.

#스포츠포아 #소년시대 #우리 #일일주막

세월호, 다시 스크린으로

영화 ‘생일’ ‘악질경찰’ 직간접적 담아



영화 ‘생일’

이젠 극영화를 통해 더

욱 다양한 이야기를 펼친다.

배우 설경구와 전도연이 주연한 ‘생일’(제작 나우필름)이 4월 초 개봉한다. 촬영이 진행될 때만 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던 영화는 최근 개봉 시기를 확정하면서 ‘2014년 4월 이후 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촬영한 ‘생일’은 2014년 4월16일 생일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억하는 가족의 이야기다. 설경구와 전도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 역할이다. 가족을 향한 미안함을 안고 사는 아빠,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로 각각 나선 두 배우는 깊은 상실감 가운데서도 작은 희망을 쫓아가는 이야기를 펼친다.

연출자 이종언 감독은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가진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 ‘시’의 연출부를 거친 이종언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데뷔한다.

3월21일 개봉하는 이선균 주연의 ‘악질경찰’(제작 청년필름)은 범죄 드라마다. 뒤편을 찡고 비리에 눈감는 경찰관이 주인공이다. 비리와 음모로 뒤섞인 이야기나 범죄극이라는 장르에서 열띤 세월호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영화는 참사와 관련한 피해자를 언급하는 등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더해 극의 배경을 안산으로 택한 제작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 작품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편집 | 김형조·김대건 기자

‘1박2일 인턴’ 이용진, 예능 대세로 떠오를까

타고난 입담...멤버들과 호흡 척척
유재석도 인정한 예능계 다크호스

‘2019 예능 픽(PICK)!’

개그맨 이용진이 KBS 2TV ‘1박2일’ 시즌3 등 예능프로그램과 개그프로그램 tvN ‘코미디빅리그’를 넘나들며 맹활약하고 있다. 덕분에 많은 시청자 사이에서 올해 성과가 기대되는 ‘예능인’으로 꼽히고 있다. 유재석을 비롯한 선배 방송인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용진은 1월부터 ‘1박2일’에 출연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지난해 11월 ‘1인 크리에이터 컬래버레이션’ 특집에 나와 깊은 인상을 남긴 그의 합류를 반겼다. 이용진은 기존 멤버인 김준호, 정준영 등도 꼼짝 못할 패기와 말솜씨로 순식간에 ‘뉴 히어로’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4년 SBS ‘웃찾사’로 데뷔한 뒤 개그 프로그램에 주로 출연해온 이용진은 지난해부터 예능프로그램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MBC ‘웃바의 Q’와 ‘복면가왕’을 통해 두각을 나타낸 뒤 채널A ‘팔아아 귀국’의 고정 멤버와 XtvN ‘힐퀴’의 메인 진행자로



이용진

무대를 넓히고 있다. ‘해피투게더4’의 진행자 유재석은 “이용진이 ‘1박2일’에 고정 멤버로 합류해 그와 프로그램 그리고 출연자 모두에게 ‘원원’이 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시청자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일용 PD에서 김성 PD로 연출자가 교체되면서 침체될 뻔한 ‘1박2일’의 분위기를 이용진이 잘 살려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개그 무대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멤버들 사이에 잘 녹아드는 친화력이 ‘1박2일’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도 줄어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배우 설경구 천우희 한석규(왼쪽부터)가 영화 ‘우상’을 위해 주먹을 쥐어 보였다. 20일 서울 강남구 C GV입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들은 “전무후무한 이야기”라고 입을 모았다. 영화는 이들의 평소 사고로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은 남자(한석규)와 모습 같은 아들이 죽고 진실을 찾는 아버지(설경구), 사건의 비밀을 간직한 여성(천우희)이 얹힌 이야기다. 16일 막을 내린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부문에 소개돼 호평 받았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